

서문: 김정은 시대 북한 도시의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백영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장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중적 관심은 주로 군사적 도발이나 정치체제 변동과 같은 표면적인 정치군사적 사안에 치우쳐 북한사회의 내밀한 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체제 선전의 장이면서 동시에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인 북한 도시의 다채로운 실상을 구체적으로 발굴해 내고 입체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은 학술과 정책 양 측면 모두에서 긴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김정은 정권은 ‘최고지도자 우상화’를 도시개발의 최우선적 목적으로 강조하던 이전 정권과는 달리,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 문명’ 제고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인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도시개발 및 건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문화·체육시설 및 살림집을 중심으로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 도시의 변화 양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북한의 도시는 사회주의적 보편성과 ‘우리식’ 특수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북한은 초창기 국가건설과정에서부터 한

* 이 공동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화 전략: 도시문화 전파를 통한 새로운 ‘도시성’의 발현”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연구지원을 받아 진행된 5인 공동연구작업의 성과물이다(연구기간: 2022.4.1~2023.1.31; 연구책임자: 김백영).

편으로는 사회주의적 도시개발 모델을 적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독특한 북한식 도시건설의 특징을 견지해 온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의 경험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국토계획과 도시·지역개발에 있어서 독특한 공간적 경로의존성을 띠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북한도시의 변화 양상을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도시의 역사적 특성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북한 도시의 첫 번째 손꼽히는 특징을 들자면 ‘주체의 도시건설 원칙’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을 체제 선전의 전시공간으로 활용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도심부에 광장과 기념비적 건축물을 건설하여 체제 우월성 과시와 지도 사상과 이념, 교양 학습장소 및 혁명 기념 장소의 중심축을 배치함으로써 ‘극장국가’의 정치적 연출을 꾀해 왔음은 그 단적인 예다. 하지만 그동안 수행된 북한 도시연구의 압도적 다수가 지역적으로는 주로 평양으로 대표되는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주된 연구관심 또한 통치전략 차원에서의 도시공간에 대한 현상적 분석에 치중해 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국토계획, 지역개발, 도시계획, 주요 건축물, 가로배치, 인구분포 등 개별 도시의 물리적·공간적 특성과 도시사회의 외형적·양적 속성에 대한 현상적 분석 위주의 연구가 북한 도시연구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해 사회문화적 차원의 의식·정서를 중심으로 한 북한 도시사회의 특성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특히 김정은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공식적 통치담론에서 ‘도시문화’에 대한 강조가 대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의식·정서적 차원의 재현 공간으로서 북한의 ‘도시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도시계획 및 개발은 중앙집권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점 또한 북한 도시의 중요한 제도적 특성으로 들 수 있다. 북한에서 도시계획·경영은 기본적으로는 내각의 국가건설감독성, 도(道)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관리국, 시(市) 인민위원회의 도시경영과가 담당하는 수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형식적으로는 중앙집권적·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시장화의 진전으로 인해 상당한 변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난과 국가 건설자금 지급 중단 등으로 인해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이 장기화되면서, 2012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발표 이후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고 지방기관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본력을 갖춘 ‘돈주’들이 시장에서 자금과 노동력, 건설자재 등 주택 건설 비용을 제공하면서 도시 및 주택 개발과 주택 및 상가 임대, 운송과 물류에서 민간자본이 주도하는 상업화와 개방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도시사회가 전면적으로 시장화, 자본주의화를 향해 급진전하고 있다고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북한 도시의 세 번째 특징이 제기된다. 북한의 도시건설 정책의 특징 중 하나는 군(郡)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정치·행정적 중심점이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이념은 성장과 발전보다는 평등과 분배를 지향하기에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도시와 촌락 간의 불균등 발전을 지양해야 할 현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불균등 발전의 원인이자 결과인 대도시는 지양해야 할 대상이기에 대도시의 성장은 가급적 지연시키면서, 도시와 촌락이 생산과 소비 양 측면에서 상호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지역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인구가 1,415만 명, 농촌인구가 919만 명으로, 북한 전체인구에서 약 4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이러한 사회주의적 도시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북한은 196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역적 거점으로서의 ‘군(郡)’의 역할과 기능을 중시하는 원칙을 천명한 이래 기존 도시의 주요 기능과 역할의 많은 부분을 실제 주민생활 중심인 군 단위로 설정해 왔다. 북한의 지역사회에서는 군이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접착점이자 통일적인 지도단위로서 결절점이 되도록 지역 공동체의 단위를 설계해 온 것이다. 최근 북한 사회 변동의 향방을 지역 차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의 군 단위 사회편제가 지닌 독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상 3가지 측면은 오늘날 북한 도시가 지닌 독특한 다면성과 역동성에 접근하기 위해 반드시 짚어 봐야 할 수많은 변수들 가운데 몇 가지 핵심적 특징에 불과하지만, 의외로 이러한 인식조차 충분히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사회에 대한 총체적 무지’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학계의 현실이다. 이 공동연구는 이러한 북한 인식의 척박한 현실에 대한 경각심과, 북한 도시에 대한 새로운 접

근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의 문제적 인식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통치 체제와 시민 일상생활의 상관적 변화 양상을 도시 현상에 초점을 맞춰 다각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통 질문을 바탕으로 본 공동연구는 상호 긴밀히 연관된 4가지 연구문제를 아래와 같은 네 편의 연구논문을 통해 규명해 보고자 했다.

첫 번째 논문인 임수진의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 도시공간의 생산: 르페브르의 공간이론을 중심으로”는 김정은식 ‘사회주의 문명’ 도시 공간의 생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 담론적 특징과 실질적 전개 양상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문제로 제기한다. 이 논문에서는 앙리 르페브르가 고안해 낸 삼차원적 공간 개념—‘공간 재현’, ‘재현 공간’, ‘공간적 실천’—을 활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즉 북한 도시공간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북한 정치엘리트들의 공간 기획, 도시공간의 이미지와 상징을 살펴볼 수 있는 북한의 사회 담론, 그리고 실제 공간을 전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북한 도시민들의 공간 경험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김정은체제하 북한의 도시공간이 어떻게 설계되고 인지되며 실제 경험되고 있는지에 대해 입체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모든 인민’을 위한 도시로서 선전되며 건설된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문명’ 도시공간의 생산이 실제 인민이 원하는 공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민을 소외시키고, 분화시키며, 파편화시키는 양상을 띠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두 번째 논문은 홍순직의 “김정은 시대 도시·주택 건설정책의 특징: 평양 살림집을 중심으로”이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개혁·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이민위천(以民爲天) 등을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에서도 변화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의 살림집 건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연구는 북한의 도시·주택 정책과 주택 건설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바탕으로 평양 살림집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도시·주택 정책의 특징과 변화,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의 평양 5대 거리와 주택 5만 호 건설계획 실적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의도와 그간의 성과 및 한계, 앞

으로의 계획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남북경협에의 시사점까지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인 조민주의 “김정은 시대의 미래과학도시 건설과 시각적 재현: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의 유행”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지향적 과학도시 건설을 전면에 내세운 대도시 선전 전략을 도시풍경화(cityscape painting)의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평양의 도시경관이 미래지향적이고 국제적 수준의 현대성을 갖추도록 만들기 위해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대동강 수변경관 조성 및 도시 야경(불장식) 조성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특히 이는 은하 3호 발사 이후 본격화된 미래과학도시에 대한 지향과 긴밀히 연관되어 추진되었다. 은하 3호 발사를 기념하는 은하과학자거리(2013), 위성거리(2014)가 연이어 조성되고, 평천구역 미래동의 미래과학자거리(2015), 려명거리(2017) 등 신시가지가 우주를 모티브로 하여 건설된 것은 그 대표적 예다. 이처럼 김정은 시기 미래과학도시를 지향하면서 급변한 평양 도시경관과 더불어 북한 현대미술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경관에 관한 정치적 서사를 인공조명과 네온사인, 작열하는 태양, 물에 비치는 야경, 짧은 붓 터치 등으로 전달하는 방식은 기존의 사회주의 회화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양식으로, 최근 북한 미술양식에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본 논문에서는 김정은 시대 인상주의 도시풍경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 시각문화의 변화 양상과 미술 제작에서 작가의 시선과 도시인의 감수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밝혀내고 있다.

마지막 네 번째 논문인 “김정은 시대, 북한식 데사코타?: 북한도시연구에 내재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을 적출하기”에서 저자 황진태는 지난 10년 동안 김정은 정권이 주도해 온 도시화 과정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양을 비롯한 특정 도시들에 시야를 국한하지 않고, 농촌 살림집 건설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변화 양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북한의 지역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김일성부터 시작된 북한의 고유한 이념·체제적 특성이 만들어 낸 공간적·비공간적 경로의존성과 현재 북한이 처한 대내외 복합위기가 우발적으로 접합되면서, 이에 대한 공간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군을 단위로 한 농촌 살

림집 건설이 추진되어 온 과정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리학자 테리 맥기(Terry McGee)가 제안한 ‘데사코타(desakota)’ 개념을 통해 북한의 도시화 양상을 도-농 복합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하면서도, 자본의 논리가 아닌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이라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형성된 북한식 도-농 복합체의 형성사적 특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구 학계에서 도입된 도시-촌락의 이분법이라는 당연시된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발본적 문제제기로, 이를 통해 저자는 비교도시론적 관점에서 북한 도시가 지닌 독특성을 이론적으로 예각화해야 한다는 참신한 제안을 제기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도시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통 목표하에 기획된 이상 네 편의 연구논문은 각각의 영역에서 오늘날 북한 도시사회의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일보한 발견과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압도적으로 평양 지역을 위주로 한, 정치적 통치전략 차원의 단안적(單眼的) 분석에 그치고 있는 북한 도시 관련 선행연구 경향을 상기해 볼 때, 이 논문들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전반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을 제공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하지만 이 공동연구가 노정하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앞으로 우리 학계의 북한 도시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넘어서야 할 관문 내지 문턱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짚어져야 할 과제로 남는다.